

#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PO 직행...창단 첫 우승 노린다

최종전 삼척시청과 비기며 2위 득점왕 강경민 통산 3번째 MVP 원선필 등 주전들 잇단 부상 속 오세일 감독 위기 관리 돋보여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2022-2023 SK 핸드볼코리아리그 2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4일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삼척시청과 경기에서 26-26(12-15, 14-11)으로 비겼다. 13승 5무 3패(승점 31)로 리그 2위를 최종 확정, 포스트 시즌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았다. 3년 연속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광주도시공사는 정규리그 3위 SK수아글라이더즈, 4위 부산시청공단의 준플레이오프 승자와 플레이 오프를 치른다. 광주도시공사가 챔피언전에 진출하면 삼척시청과 리턴매치를 벌이게 된다. 광주도시공사는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2연패, 삼척시청에 우승컵을 내줬다. 삼척시청까지 제압하면 광주도시공사는 창단 첫 챔피언 결정전 우승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된다. 삼척시청과는 올시즌 1승1무1패로 호각세다. 광주도시공사는 올시즌 꺾이지 않는 투혼을 발휘



광주시핸드볼협회가 지난 14일 도시공사핸드볼팀의 3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을 축하하고 있다. <광주시핸드볼 협회 제공>

했다. 원선필과 서아루가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되는 상황에서도 리그 2위를 마크했다. 백업요원 김지혜와 김금수 등이 전력을 매우면서 추락을 막아내는 등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선보였다. 어수선한 팀 분위기를 다잡고 치밀한 전략으로 팀을 이끈 오세일 감독의 지도력도 한 몫했다. 오세일 감독은 "주전들이 부상으로 결장했음에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싸워준 덕분에 유종의 미

를 거뒀다"고 말했다. 강경민과 골키퍼 박조은은 포스트 시즌 진출을 견인했다. 득점1위(192), 어시스트 2위(109개) 등 공격포인트(어시스트+득점) 1위를 기록한 강경민은 정규리그 MVP에 선정됐다. MVP 투표결과 17표를 얻어 2위 김민서(9표), 박조은(3표)을 제쳤다. 강경민은 개인 통산 3번째 리그 MVP로 선정됐다. 강경민은 "리그 우승하고 MVP를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며 "힘들게 싸워준 선수단에 고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조은은 방어율 1위(41.5%), 세이브 2위(288개)에 랭크됐다. 광주도시공사는 16일 핸드볼 코리아리그 시상식이 끝나고 곧바로 선수들에게 휴가를 줬다. 체력과 컨디션이 급격히 저하돼 휴식이 필요해서다.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20일부터 선수단을 소집해 포스트 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돌입한다. 오는 5월 1일 준플레이오프 승자가 정해지면 상대 팀 전략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광주도시공사



유석우 광주시핸드볼협회장이 삼척시청과 리그 최종전에서 경기 MVP로 선정된 강경민(오른쪽)을 시상하고 있다. 3일 플레이 오프 경기를 치른다. 오세일 감독은 "일단 리그에서 드러난 수비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라면서 "선수들이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페이스를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 피겨 대표팀이 '차준환(고려대)의 막판 역전극을 앞세워 일본을 한 점 차로 제치고 국가대항전인 팀 트로피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은 점수 확인하고 기뻐하는 차준환(가운데). /연합뉴스

## 차준환·이해인 또 새 역사...한국 피겨, 팀 트로피 준우승

한점 차이로 일본 제쳐 불가능해 보였던 시나리오에 차준환과 이해인이 현실로 만들었다. 이해인은 13일 일본 도쿄 체육관에서 열린 팀 트로피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올 클린 연기를 펼치며 12명의 출전 선수 중 1위를 차지했다. 세계선수권대회 2연패에 빛나는 일본 간판 사카모토 가오리를 꺾는 이번이었다. 이해인의 쇼트 1위는 운이 아니었다. 그는 14일 열린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도 완벽한 연기로 1위에 올랐다. 이해인은 쇼트프로그램(76.90점)과 프리스케이팅(147.32점) 모두 개인 최고점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해인의 쇼트, 프리 1위로 한국은 랭킹 포인트 24점을 총 24점을 가져갔다. 차준환은 13일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101.33점을 받아 12명의 출전 선수 중 2위에 올랐다. 쇼트프로그램 100점은 한국 선수 그 누구도 넘지 못한 '마의 장벽'이라 불렸는데, 차준환이 이번

대회에서 이를 넘어섰다. 그는 15일 대회 마지막 종목인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87.82점을 받아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사실 한국은 차준환이 최소 2위 안에 들어야 일본을 제치고 은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다. 무거운 짐을 안고 출전한 차준환은 2개의 4회전 점프를 포함해 고난도 기술을 완벽하게 처리하며 최고의 성과를 끌어냈다. 차준환은 쇼트에서 11점, 프리에서 12점을 한국에 안겼다. 차준환, 이해인이 이번 대회에서 차지한 비중은 매우 컸다. 두 선수가 얻은 점수는 총 47점으로 총점(95점)의 절반에 가깝다. 한국은 이번 대회 페어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아이스댄스 리듬댄스와 프리댄스 등 4개 종목에서 모두 최하위에 그쳤으나 차준환과 이해인의 활약 덕분에 일본을 한 점 차로 제치고 은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테니스 국가대표 선수단이 국가대항전인 빌리진킹컵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1그룹 예선을 통과했다. 김정배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2023 빌리진킹컵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1그룹 예선 5차전에서 인도네시아를 2-1로 물리쳤다. 3승 2패를 거둔 한국은 일본(5승)에 이어 2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다. 6개 나라가 출전한 이번 지역 예선 1, 2위가 플레이오프에 나가고, 3, 4위는 1그룹 잔류, 5위와 6위는 지역 2그룹으로 강등된다. 한국은 1단식 김다빈(640위·강원도청)이 바이테히 차우다리(479위)를 2-1(2-6-4-6-4)로 제압했고, 2단식 구연우(421위·성남시청)는 루투자 보살레(400위)에게 1-2(5-7-6-2-2-6)로 져 1승 1패가 됐다. 마지막 복식에 나선 최지희(NH농협은행)-김

## 한국 여자테니스 일냈다

인도 꺾고 25년만에 국가대항전 빌리진킹컵 지역 예선 통과

다빈 조가 인도의 보살레-안카타 라이나 조를 2-1(6-4-2-6-6-3)로 꺾어 우리나라의 이번 대회 준우승이 확정됐다. 우리나라가 이 대회 지역 예선을 통과한 것은 대회 명칭이 페드컵이었던 1998년 월드그룹 2 진출을 위한 플레이오프에 나간 이후 올해가 25년 만이다. 이후 1999년부터 계속 지역 1그룹 또는 2그룹에 머물러 왔다. 빌리진킹컵 구조는 세계 16강에 해당하는 본선과, 그 직전 단계인 본선 진출전(Qualifiers)과 본선 진출전에 나갈 팀을 정하는 플레이오프, 그리고 그다음 단계인 대륙별 1, 2그룹으로 나뉜다. 한국은 11월에 16강 본선 진출전에 나가기 위한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플레이오프에서 이기면 16강 직전 단계인 본선 진출전에 오르고, 패할 경우 다시 지역 1그룹으로 내려간다. /연합뉴스

## 김연경 흥국생명 잔류... 1년 7억7500만원

여자 프로배구 슈퍼스타 김연경(35)이 원소속 팀 흥국생명에 잔류했다. 흥국생명은 16일 자유계약선수(FA) 김연경과 계약기간 1년, 총 7억7500만원(연봉 4억7500만원, 옵션 3억원)에 도장을 찍었다고 발표했다. 김연경은 구단을 통해 "첫 FA 자격을 얻어 생각을 많이 했다"며 "마르첼로 아본단자 감독님의 다음 시즌 구상 계획이 흥국생명과 계약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그는 "2022-2023시즌 관중석을 가득 채워준 팬들의 합성이 생생하다"며 "아쉽게 우승컵을 놓쳤지만, 다음 시즌엔 꼭 들어 올리겠다"고 다짐했다. 아본단자 감독은 "김연경은 기술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팀에 좋은 영향을 줬던 선수"라며 "함께 할 수 있게 돼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연경은 2005년 흥국생명에 입단해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고, 2009년 인대 선수 신분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이래 11년간 터키, 중국 등 해외무대에서 활약했다. 그는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둔 2020-2021시즌 흥국생명으로 복귀해 한 시즌을 치르고 나서 다시 중국리그에서 뛰었으며 1년 만인 2022-2023시즌 흥국생명으로 돌아와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김연경은 2022-2023시즌을 마친 뒤 은퇴를 고려했으나 선수 생활을 연장하고 흥국생명과 FA 계약을 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존 워 4
2관	킬링 로맨스
3관	리바운드, 소울메이트,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4관	존 워 4
5관	존 워 4, 나는 여기에 있다, 오토라는 남자
6관	스즈메의 문단속, 에어, 나는 여기에 있다
9관	스즈메의 문단속, 겨울 속 외딴 성
7관	씨네카를 킬링 로맨스
8관	씨네카를 리바운드, 물안에서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4-01(토) ~ 2023-04-30(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